

2월 20일자 KBS 9시뉴스 [심층취재]“교육비 지출 양극화 심화” 보도관련 한경연 참고자료

동 기사는 2010년 상위 20%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이 하위 20% 저소득층보다 6.3배 많은 것으로 보도하는 등 교육비 지출 양극화 심화를 주제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과장된 면이 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특히 문제점으로 언급한 사교육비 격차 확대의 경우 가구소득별 1인당 사교육비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고려하는 경우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격차는 최근에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2월 20일 KBS 9시 뉴스에서 방송한 교육비 지출 양극화 심화 보도는 과장된 면이 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

- KBS는 2012년 2월 20일자 보도에서 2010년 상위 20%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은 하위 20% 저소득층보다 6.3배 많은 것으로 보도

- 특히 학원비 지출액의 격차는 2003년 6.04배에서 2010년 8.11배로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교육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방송에서 언급한 양극화 심화 보도는 1인당 교육비가 아니라 자녀의 유무나 자녀의 수를 구분하지 않은 소득계층별 가구의 전체 교육비 지출을 사용하여 비교한 것으로 문제가 있음

-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자녀수가 더 적고, 자녀 없는 가구 수의 비중이 많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추세가 심화된 것을 고려하면 소득분위별 가구전체의 교육비 계산 시 그 격차는 최근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표 1> 소득 분위별 재수생 이하 평균 자녀 수

| 구 분 | 가구소득 1·2 분위 (A) | 가구소득 9·10 분위 (B) | (B)/(A) |
|--------|-----------------|------------------|---------|
| 2001년도 | 1.70 | 1.78 | 1.05 |
| 2005년도 | 1.62 | 1.73 | 1.07 |
| 2009년도 | 1.46 | 1.67 | 1.14 |

자료: 노동패널 각 년도, 단위: 명

- 또한 교육비 지출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석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 예를 들어 정부의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지원 대책이 실효를 거두게 되면 오히려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오히려 소득계층별 교육비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의 주의가 필요

□ 특히 문제점으로 언급한 사교육비 격차 확대의 경우 가구소득별 1인당 사교육비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고려하는 경우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격차는 최근에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에서 2012.2.17.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대비 소득 700만원 가구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비율은 2007년 8.83에서 2011년 6.47로 오히려 감소하여 교육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임

<표 2>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구 분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 | | |
|--------------|----------------------|-------------|-------------|-------------|-------------|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전 체 | 22.2 | 23.3 | 24.2 | 24.0 | 24.0 |
| 100만원 미만(A) | 5.3 | 5.4 | 6.1 | 6.3 | 6.8 |
| 100 ~ 200 미만 | 10.7 | 10.8 | 11.0 | 10.3 | 10.9 |
| 200 ~ 300 미만 | 17.7 | 17.7 | 18.0 | 17.0 | 17.4 |
| 300 ~ 400 미만 | 24.1 | 24.5 | 24.6 | 24.0 | 23.4 |
| 400 ~ 500 미만 | 30.3 | 30.6 | 31.0 | 29.8 | 29.0 |
| 500 ~ 600 미만 | 34.4 | 35.6 | 37.2 | 36.2 | 34.0 |
| 600 ~ 700 미만 | 38.8 | 40.2 | 42.0 | 40.4 | 39.4 |
| 700만원 이상(B) | 46.8 | 47.4 | 51.4 | 48.4 | 44.0 |
| B/A | 8.83 | 8.78 | 8.43 | 7.68 | 6.47 |

- 노동패널을 이용할 경우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대비 상위 20% 고소득층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2006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교육비 격차는 오히려 감소

<표 3> 가구 소득분위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추이

| 구 분 | 가구소득 1·2 분위 (A)* | 가구소득 9·10 분위 (B)* | (B)/(A) |
|--------|------------------|-------------------|---------|
| 2006년도 | 5.90 | 36.85 | 6.25 |
| 2007년도 | 7.54 | 40.63 | 5.39 |
| 2008년도 | 9.24 | 43.65 | 4.72 |
| 2009년도 | 13.38 | 43.35 | 3.24 |

* 단위: 만원

- 요약컨대 최근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교육비 격차확대 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통계청 자료나 노동패널 자료 분석에 의하면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 간 교육비 격차는 최근에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